

# 문화관광부 '2004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성인 한 사람이 1년간 책 11권 읽어

베스트셀러 의존 경향 심화... (재)한국출판연구소 조사

## 공공도서관 이용률 증가속 '독서인구 양극화'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은 지난 한해 동안 11권의 책을 읽었으며, 국민 4명 중 1명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마다 전년보다 1권씩 책을 더 읽음으로써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의 독서 증가량을 보인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임홍조)에 의뢰, 지난해 11월 한 달 간 전국의 성인 1,000명과 초·중·고생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율도 전년도에 비해 4.3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도서관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 이후 2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선 또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비율도 16.9퍼센트나 늘어난 70.7퍼센트를 기록, 사상 최고의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는 다독자 인구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잡지 열독률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생들의 독서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개인간의 독서량 편차가 커지는 '독서인구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에선 또 IT강국의 현실을 반영, 여가시간중 인터넷 이용률과 인터넷 서점 구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다만 디지털 시대의 책으로 주목받는 전자책 이용률은 2년 전보다 소폭 증가(성인 4.8퍼센트, 학생 13.4퍼센트)에 그쳐 종이책의 위상이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예측을 가능케했다.

##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 위해 독서' 응답 다수

지난 1993년 이래 일곱 번째 실시된 이번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선 특히 베스트셀러에 치중된 독서경향도 다시금 확인됐다. '기억에 남는 도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 '도서구입 시 고려 요인' 등의 설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시중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일치하는 도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한편 지난 10월말 교육부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제시된 '교과별 독서활동의 입시 반영정책'에 대해선 학생들의 찬반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전체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초·중·고생 평일 독서시간은 47분이며, 초등학생은 2년 전보다 10분 정도 줄어든 반면, 중고생은 약간 늘어났다. 이에 비해 성인은

평일 37분으로 2년 전 조사 결과보다 6분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들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 (30.4퍼센트)이며, '교양·인격 함양'이나 '마음의 위로·평안' 등이 각기 18.6퍼센트, 12.5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독서가 즐겁고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응답은 4.7퍼센트에 불과, 독서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역시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 (36퍼센트)이 가장 많았으나, 성인과 달리 '독서가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란 대답이 17.9퍼센트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 '책읽기', 여가수단 가운데 5.9퍼센트에 불과

독서 장소는 성인과 학생 모두 집이 가장 많았다. 또 독서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로 성인들은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독서가 습관화되지 않았다'거나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여가생활에서 TV시청(19.8퍼센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책읽기'는 불과 5.9퍼센트를 차지, 인터넷이나 컴퓨터게임 등에 이어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평소 즐겨 읽는 책은 아무래도 문학도서가 42.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일반소설과 수필·명상, 추리소설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도서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실용·취미도서, 교양서, 만화·무협지류 등을 많이 보는 경향이었다.

다만 중고생들도 일반소설을 많이 보긴 하나, 만화, 무협지, 판타지소설, 추리소설, 연예·오락

2004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서율도 전년도에 비해 4.3%포인트 가량 늘어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비율도 16.9퍼센트나 늘어난 70.7퍼센트를 기록했다.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터넷 서점 및 도서정보검색 비율 크게 증가

경제불황 타인지 응답자 가운데 책을 직접 사서 보는 경우는 37.1퍼센트에 그친 반면, 주위사람이나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는 대답이 33.7퍼센트를 차지했다. 초·중·고생은 빌려보는 비율이 그보다 훨씬 높은 50.3퍼센트에 달했다. 책을 살 때 무엇보다 '내용'을 중시하며, 베스트셀러 목록과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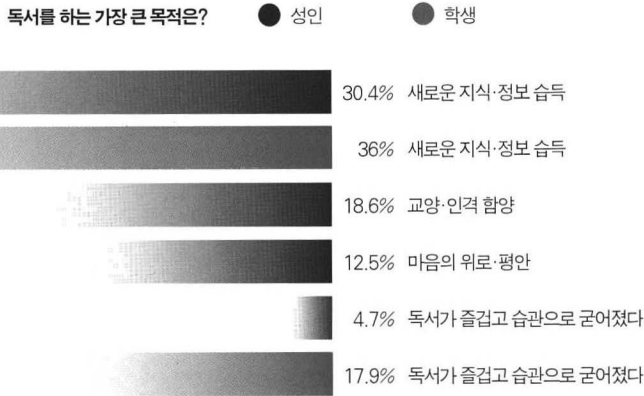
성인들의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8,800원, 잡지 구입비는 1,600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5만 원어치 이상 책을 사는 인구는 2년 전보다 0.6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출을 늘리고 싶은 문화생활비' 가운데 도서·잡지 구입비는 문화관련 강습비(29.4퍼센트)나, 공연관람비(24.4퍼센트)의 절반 수준인 13.4퍼센트에 그쳤다. 책을 사는 곳은 시내 대형서점(32.8퍼센트)이 가장 많았으며, 동네서점은 15.4퍼센트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시내 대형서점(32.2퍼센트)과 학교 근처서점(25.4퍼센트)을 고루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2~3배 가량 늘어난 9.8퍼센트(성인), 10.1퍼센트(학생)에 각기 달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도서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률은 성인 33.4퍼센트, 학생 38.9퍼센트로서 지난 2002년 조사 결과에 비해 7~8퍼센트 증가했다.

(재)한국출판연구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비중과 베스트셀러 의존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경기침체 탓에 책을 사기보단 빌려 읽는 비율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라며 "이번 조사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위해 국민독서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판저널] 편집부

### 2004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조사기간:** 2004년 11월(1개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 전국 초·중·고생 2,700명  
**조사방법:** 면접·설문조사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성인), ±1.79%(초·중·고생)



서적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초등학생은 오락용·학습지 만화를 즐겨 보는 데 비해, 여학생은 어린이 소설을 많이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교양(26.4퍼센트)과 실생활의 도움(20.4퍼센트) 등의 목적으로 책을 산다고 대답했다. 그 밖에 재미·오락, 학습·업무, 자녀교육 등의 순으로 구매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또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 이문열의 《소설 삼국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조창인의 《가시고기》, 스펜서 존슨의 《선물》, 김훈의 《칼의 노래》 등 시중의 베스트셀러를 '지난 1년간 읽은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도서'로 꼽기도 했다.

다만 중고생들은 《삼국지》, 《그리스 로마 신화》,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어린왕자》 등의 명작류를, 초등학생들은 《해리포터》와 《삼국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꼽아 차이를 보였다.

### 유명 작가 선호도 높아... '서점서 직접 책 고른다' 가장 많아

작가 선호도에선 세대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들은 이문열, 박경리, 박완서, 이외수, 조정래, 최인호, 공지영, 김홍신, 황석영, 김진명, 신경숙, 한수산 등 지명도가 높은 소설가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 시드니 셸던, 톨스토이, 펄 벅 등 외국의 유명작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초등학생들은 역시 《해리포터》의 조앤 K 롤링, 《어린왕자》의 생텍쥐페리, 청소년 인터넷 작가 귀여니 등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중학생들 역시 조앤 K 롤링과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리고 황순원을 꼽았으며, 고교생은 박완서, 귀여니, 조창인, 이문열, 김진명 등을 '좋아하는 작가'로 들었다.

응답자들은 《삼국지》, 《대지》, 《연금술사》, 《가시고기》, 《어린왕자》, 《선물》, 《연탄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태백산맥》, 《성경》, 《대지》, 《나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가장 추천하고픈 책'으로 꼽았다. 책을 고를 때 성인들은 '서점에서 책을 직접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문·잡지 책소개'나 '주위의 추천' 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부모·형제 추천'이나 '친구 추천'이 많았으며, 중고생은 '친구 추천' 또는 '베스트셀러 목록'이 가